



### 포천신문 가족 만복 축원

행복한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다시 맞이하는 새해에는 우리의 삶이 보다 행복해야 한다는 강한 바람을 소원하면서, 포천신문 가족 여러분에게 만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황 병 기**  
경북대 학장

인간생활에 있어, 절대적이고 필요 충분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인간, 공간, 시간 중에서도 우리가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속되는 것이 시간의 흐름이라고 새삼 생각하면서, 이제 새로운 매듭의 출발선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의 질서가 유리되고, 세태가 돌발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시간의 흐름은 잠시 쉬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초연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결코 썩지도 않으며, 보관할 수도 없으며, 부자에게 더 주어지지 않으며, 한계효용의 법칙에 구애받지도 않는 생명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 세월동안, 포천신문이 숭고한 언론의 정도정신에 입각하여, 그 사명과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해 온 점에 깊은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무릇, 신문과 교육의 목적은 동일적이어서 권력의 쟁취나 경제적인 이윤추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적응하면서, 인간의 노력으로 이상과 행복을 실현하는 인간의 양성과 사회발전의 계도에 있다고 볼 때, 그 맥을 같이하고 있는 문화의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에게 날개가 결코 짙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창달시키는 일들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남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그리고 동서양의 많은 철학자들은 인생의 가장 높은 소망은 "행복 추구"라고 했습니다. 최근 껍질이 조사한 통계에서도 인생의 최고 이상은 행복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새해에는 포천신문과 함께, 우리들이 보다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각자가 자아발견에 노력하고, 자기의 비전과 신념을 세우며, 도전하는 대열에 참여해야 합니다. 비전과 도전은 미래를 창조하는 원천이며, 행복으로 가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할 때, 우리의 모습은 달라지게 되며, 새로운 가치관과 미래상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차, 포천신문을 사랑하고 후원해 주시는 가족 여러분에게 건강과 행운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포천이 하나 되는 해로 만듭시다

대망의 새해아침이 밝았습니다. 신년에는 고향의 가정 가정마다 만복이 듬뿍 깃들고 운수대통 하시길 기원 드리며 고향 포천에서 태어나 몸은 비록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 하지만 항상 고향을 생각하고 사랑하며 고향이 그리워 만나는 재경포천시민회 회원님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운수대통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 문 용**  
재경포천시민회장

제가 조심스럽게 2006년은 포천이 하나 되는 해로 만들자고 부르짖고 싶습니다. 그 이유인즉 제가 근무하는 경남신문이 경상도 신문이라 신문사 업무로 진주분인 모인사와 마산분인 장관을 지낸 모인사를 저희 신문사 사무실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우리 포천 사람으로서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질 것입니다. 저희신문사 업무로 모셨기 때문에 제가 인사를 시켰습니다. 누가 먼저랄것도 없이 인사가 끝나자마자 마자 첫 마디가 어느 학교 몇 회 십니까 하니 진주분이 먼저 진주고등학교 몇 회입니다. 함과 동시에 마산출신 장관을 지낸 분이 일어나 정중히 저는 마산고등학교 몇 회인데 2년 후배입니다. 하고는 선배님께 인사드리겠습니까 하고 허리를 완전히 굽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절을 하는 것을 보고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마산에서 진주까지는 포천에서 춘천보다도 더 먼 거리인데 포천고등학교 졸업생이 춘천고등학교 졸업생 만나면 선배님하고 절을 할 수 있었습니까? 포천사람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 경상도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광범한 국민정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더 놀랄만한 정서는 마산하고 진주는 100리길에 학교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선배 후배를 따지느냐고 질문하니 놀랍게도 경상도는 하나인데 무슨 마산 진주 따져서 경상도가 언제 발전하느냐 경상도는 하나라고 신문에서 캠페인을 벌려달라 이 말을 들으며 이래서 대한민국 건국 60년 중에 40여년을 경상도에서 집권했구나 하는 이유를 어렵잖이 터득하고 중부지방도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겠나 그것이 어려우면 포천만이라도 하나가 됩시다.

신문중에서 태어나도 포천사람, 일동면에서 태어나도 포천사람, 어느 읍·면·동 태어난 곳 따지지 말고 모두 통틀어 포천 출신으로 통일합니다. 또 포천종합고등학교를 졸업해도 포천에 있는 고등학교 출신, 동남고등학교를 졸업해도 포천에 있는 고등학교 출신으로 어느 고등학교를 나와도 포천에 있는 고등학교 출신으로 포천은 하나라고 통합하여 분출되는 엄청난 힘을 모아 포천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 인재 양성과 살기 좋은 포천 만들기에 다함께 동참합니다.



### 우리 모두 一心同體 되는 해

尊敬하는 柳|柳閣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아 왔습니다. 목은 한해를 보낼 때면 한편으로 悔恨에 잠기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발걸음은 힘차고 마음 또한 太陽처럼 밝습니다.

**양 재 창**  
포천향교 전교

밝아오는 丙戌年 새해에는 우리 모두 가슴에 가득한 희망을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歷史的 課業을 完遂해야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主人意識을 갖고 가까운데서 그리고 쉬운 일부터 하나 하나 챙겨 나가야 하였습니다.

집이 아무리 가난하고 누추해도 主人은 결코 집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룻밤 묵어 가는 나그네는 떠나며 그만이지만 참 主人은 자신의 집을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主人意識을 가지고 어느 한 사람만의 사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 主人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一心同體가 되어야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人倫道德이 땅에 떨어졌다고 말들은 하지만, 얼마전 여성유도회와 청년유도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전통 기로연을 시연하는 경로잔치를 보면서 정반대의 생각을 했습니다.

불씨만 지키면 언제든 지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화덕불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그리고 그들의 눈에서 그들의 힘찬 숨결에서 희망찬 미래를 예견하는 확신을 했습니다.

정리로운 사람이 반드시 勝者가 되는 사회, 아름다운 미풍양속과 善行이 살아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손을 굳게 잡읍시다.

숙연한 자세로 지난해를 돌이켜 보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의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고 가정에는 평안과 큰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산·학·연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다사다난했던 2005년이 저물고, 희망찬 병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안 준 수**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경기북부지역 기술혁신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경기도, 포천시, 대전대학교 재단의 출연과 컨소시엄 대학의 참여를 바탕으로 경기북부 지역의 산업적 특성과 미래성장가능성을 고려하여 특화산업분야를 집중육성하고 산업집적성을 통한 지역기술혁신의 선도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구성된 산업지원부 지정 기관입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2013년까지 포천시 자작동 산 32-1번지 3만여평의 부지에 종합지원센터, 커뮤니티센터, 시험생산동, 고도화기술센터 등을 함께 조성합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환경, 에너지, 바이오, 디지털 디자인, 열색 및 피혁 등과 관련한 3대 중점 특화사업과 지역 농산물 첨단기술화, 가구관련 기술 및 디자인 개발 등의 중점연계사업 등을 실시하여 우리나라 기술집중 중심지로 육성될 예정입니다.

특화 및 집중, 글로벌 네트워크, 연구개발과 국제화의 주요전략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2006년도 사업목표는 종합지원센터의 건축공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첨단산업과 전통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입니다. 산업체를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종합지원센터의 건축공사를 3월중에 시작하고, 산·학·연 협력체제의 구축, 국내외 지역간의 교류 및 협력의 확대를 기술혁신의 기반을 마련하여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며, 국내외 기술현황 제공 및 기업체와 제품의 홍보를 극대화하고 지자체, 대학, 산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첨단산업과 전통산업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보내 주셨던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에도 변함 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새해에는 소원하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가정에는 평안과 만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역량 집중

다사다난했던 2005년 을유년 한 해를 보내고 2006년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는 여명(黎明)이 밝았습니다.

**김 인 만**  
포천상공회의소 회장

개띠해의 상징은 현신적이고 남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품위와 책임을 다하는 충직성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병술년 새해를 맞아 다가오는 의미처럼 상공인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건강과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지난 한해동안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본 상공회의소 육성발전에 몰심 양면으로 도움을 주시고 동참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지도관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포천상공회의소 창립이 어언간 2년이란 세월로 접어들고 있음에 초창기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발판으로 운영의 경험들이 조금씩 축적 성장하여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설명회, 간담회, 교류회, 교육 등 현상실무업무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여 실무자의 자질향상에 중점을 두었으며, 기업경영에 따른 애로요인을 청취 해당 유관기관과의 건의와 질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고, 구인구직, 근로자 위안행사, 무역박람회, 선진업체견학, 실무부서장 교류회 등 경영활성화 추진사업과 중원원 사기진작을 도모,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를 하였습니다.

2006년도 본 상공회의소가 당면한 과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업육성과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우리의 성장 잠재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법령과 제도를 개정하는데 대한상공회의소와 지방상공회의소가 협력 지역실정을 파악하여 대정부 건의를 통해 정책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므로 지방경제 활성화에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회원서비스의 양과 질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 변신으로 부단한 노력을 통해 회원사에 봉사하고 기업으로부터 호응과 지지를 받는 상공회의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베풀어주신 호의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심과 임직원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새해엔 봉사활동 앞장서는 한해

친애하는 16만 시민 여러분! 희망에 찬 병술(丙戌)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 병 업**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장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알찬 새해 설개로 모든 일 소원성취 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동안 지역사회발전과 봉사활동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을유(乙酉)년은 세계무역개방 압력과 농산물 수입의 자유화 물결로 인하여 우리 농촌과 도시가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련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반인륜적 테러행위가 무차별적으로 발생하여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는가 하면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기상이변 현상이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불확실성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정된 자원과 노력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과 혁신적인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국내외적 조류를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 극복하면서 우리 고장 포천을 지방화 시대로 선도해 나가는 선진복지국가 교장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힘겨운 과제를 전 시민이 풀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는 조화로운 사회건설과 선진복지국가 건설을 위하여 외롭고 쓸쓸하고 소외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나라사랑 가정사랑운동으로 지난 광복 60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국가계양은 나라사랑 실천" 운동을 전개하여 태극기 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민주시민 의식 함양과 시민의 애국심 고취운동에 앞장서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한해동안 진실, 질서, 화합 3대 이념으로 지역에서 바르게살기 운동 활성화와 자원봉사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600여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모든 시민이 올바른 의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지역사회발전과 봉사활동에 앞장서 선진복지국가 건설을 이룩하는 한해가 되도록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일번지 암소이동갈비가 새로운 메뉴를 선보입니다”

1층 돼지갈비, 암소이동갈비

신메뉴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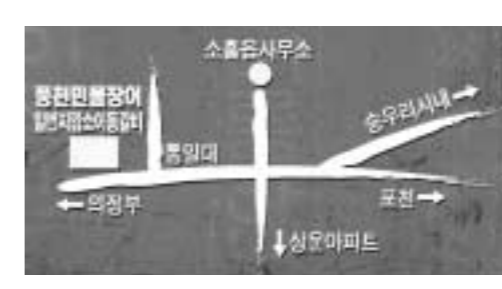
2층 풍천민물장어 · 동태탕 · 동태찜



자연산장어  
민물장어 전문  
동태탕  
동태찜



250억 보유, 연말연시 예약중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149-4  
대표 김애화  
031) 542-1887~8